

1월16일(월)/히11:17~40 (6)

제목: 순교자를 기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과거 유대교 신앙의 선배들이 당했던 박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 독자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석방을 거부하고 고문을 달게 받은 사람도 있었다(35절). 어떤 사람들은 채찍과 돌과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고 톱에 끌려서 사지가 찢겨나가기도 했고 극심한 가난과 학대를 겪기도 했다(36~37절). 어떤 사람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에 은둔하며 박해자들을 피해 다니기도 했다(38절). 히브리서 기자는 물론 그들은 기독교 신앙이 아닌 유대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고 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기 전 사람들이었다(39절).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숭고한 노력으로 유대교가 말살되지 않았기에 그곳에 기독교 신앙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40절). 불교, 유교, 샤머니즘이 성행했던 한국 땅에 이처럼 기독교가 부흥한 것은 앞서 간 순교자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리는 그들의 피와 그들의 가족들이 받았을 고통을 기억해야 한다.

1월17일(화)/히12:1~13 (1)

제목: 우리들은 응원받고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크리스찬의 신앙 생활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다(2절). 크리스찬은 선수이며 그의 삶은 마라톤과 같은 경기이다. 그런데 그 경기에는 큰 격려가 있다고 한다. 그것은 눈에는 안보이지만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의 격려이다(1절). 여기서 ‘증인’은 순교자들을 가리킨다. 크리스찬은 수많은 순교자 관중들로 가득 찬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와 같다. 우리들이 날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 생활을 해 나가고 있을 때 하늘에서는 이미 승리의 월계관을 얻은 수많은 순교자들이 “잘한다. 잘한다. 힘내라.”며 응원해 주고 있다. 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또 히브리서 기자는 크리스찬의 신앙의 경주에는 또 다른 응원자가 있다고 한다. 그 응원자는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이다(2절). 예수님은 우리들이 결승점에서 만나 뵈옵기를 원하는 분이심과 동시에 경주 중간에 만날 수 있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미 그의 경주를 끝내시고 우리들이 결승점에 골인(goal in)할 때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실 분임과 동시에 경주 중간에 우리 곁에서 같이 뛰시며 응원하여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경주는 두 응원자 때문에 결코 외롭지도, 결코 힘들지도 않다.

1월18일(수)/히12:1~13 (2)

제목: 아픔을 이기는 비결

히브리서 기자는 크리스찬의 신앙 생활에 “피곤하고 낙심하는 일”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3절). 이 표현은 경기하는 선수가 심하게 허덕이다 경기를 포기하는 것을 연상시킨다.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 생활하다가 이렇게 지치고 피곤할 때 예수님을 기억라고 하였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미움과 증오를 몸소 받으셨지만 잘 참아내셨다(3절). 우리도 때로는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다. 이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결승점까지 쉽게 도달할 수 있다. 히브리서 기자의 이 말은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과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의 강도를 비교하고 있는 말이다. 예수님은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셨고, 침 뱀을 당하셨고, 가시관을 쓰셨고, 벌거벗겨 나무에 매달리셨고, 손가락 질 당하셨고, 살에 못이 박히셨다. 무엇보다 순결하신 그 고결한 인격 속에 세상 죄를 다 끌어 담으셨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맞볼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받으셨다. 예수님의 고통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 아무 것도 아니다. 고통당할 때 더 심한 고통받은 사람이 옆에 있다면 위로가 된다. 나와는 비교가 안되는 극심한 아픔을 가진 사람 옆에 서면 그저 그런 아픔을 가진 나는 쉽게 울 수 없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플 때 이 원리를 사용하라고 한다.

1월19일(목)/히12:1~13 (3)

제목: 냉대받는 것이 좋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꾸지람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친다(5절).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대하시듯이 우리를 대하신다(7절). 그러므로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식이다. 징계받지 않는 자식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니다(8절). 육신의 아버지가 내리는 징계는 자기는 옳고 공정한 것이라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다소 독선적인 면이 없지 않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들에게는 항상 최선이다(10절).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인생에서 고난을 사랑의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의 최대의 벌은 죄를 범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상관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것도 가르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내 버려두시는 사람이 있다. 그는 불행한 사람이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는 인생의 아무 고난도 없다며 행복의 미소를 지을 지 모르지만 사실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불필요하게 자식들을 슬프게 하지 않는다. 크리스찬의 모든 고난에는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 평온한 생활만 있는 크리스찬은 사실 하나님께 냉대받은 사람이다. 잠시 냉대를 받는 것은 큰 열매를 거둘 징조이다(11절)

1월20일(금)/히12:14~17

제목: 크리스찬의 고된 의무

히브리서 기자는 크리스찬은 해야 할 의무가 많다고 한다. 크리스찬은 화평을 목표로 두고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히 구별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14절). 또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15절). 혹시 교회 안에 혹시 탈락자가 없는지, 뒤처지는 사람이 없는지 늘 살펴야 한다. 뿐 아니라 교회 안에 ‘쓴 뿌리’가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15절). ‘쓴 뿌리’는 쓴물을 내는 뿌리이다. 계속해서 악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다. 항상 해독을 끼치는 사람이다. 크리스찬은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는지 항상 조사하고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음탕한 것과 더러운 생활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16절).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과 에서 형제 이야기 즉, 동생에게 장자권을 팔아넘긴 경솔한 행동으로 회개할 기회도 상실했던 형 이야기를 하고 있다(16~17절). 한번의 실수가 그만큼 치명적이고 크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다. 크리스찬은 하루 이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일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러한 수칙들을 준행하면서 평범한 매일의 삶을 걸어간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도록 부름 받았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